AI페퍼스가 일으킨 바람…광주에 배구 열풍 분다

평일 경기 2418석 중 2138석 채워…신생팀에 스타 없지만 응원 열기 TV 시청률 당일 10위…유튜브 시청·SNS 팔로워 증가 등 날로 인기 팬덤도 형성돼 선수들에 환호하고 전국 배구팬들 광주로 '원정 직관'

AI페퍼스가 광주에 배구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AI페퍼스의 인기가 부쩍 늘었다. 신생팀인 데다 이렇다 할 스타 플레이어도 없지만, 광주·전남 배구팬들의 응원 열기와 더불어 지난 9일 첫 승까 지 따내며 인기가 수직상승했다.

AI페퍼스는 지난 16일 오후 7시 페퍼스타디움에 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경기에서 IBK 기업은행을 상대했다. 경기는 2-3(21-25, 25-27, 25-29, 14-25, 9-15)으로 석패했지만, 경기장에 서는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이날 페퍼스타디움에는 2138명의 관중이 찾아왔 다. 평일임에도 총 개방 좌석 2418석의 88%를 채

페퍼스타디움에선 지금까지 6차례 경기가 열렸 다. 개막전인 지난 10월 19일 인삼공사전에서는 코 로나19 때문에 전체 관중석 가운데 20%(600석)만 을 개방했는데 만원을 이뤘다. 이어 같은 달 22일 GS칼텍스전에서 695명, 29일 도로공사전에서 727명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11월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에 따라 관중석이 50%까지 개방되자, 기다렸다는 듯 팬들 이 몰려들었다. 관중 수는 지난 2일 흥국생명전 1409명, 13일 현대건설전 2422명으로 개막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팬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

선수들이 짐을 챙겨 구단 버스에 탑승하기 전, 버 스에서부터 경기장 입구까지 수백명의 팬들이 장사 진을 이루며 선수들을 기다렸다. 기온이 6도로 떨어 진 쌀쌀한 초겨울 밤 날씨에도 팬들은 AI페퍼스 선

수들에게 뜨거운 환호를 보내고, 사인을 받았다.

AI페퍼스 팬은 물론 기업은행 김희진, 김수지, 표승주, 육서영, 김주향 등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나 기 위해 '원정 직관'을 하러 온 배구 팬들도 상당했 다. 전국에서 찾아온 팬들로부터 AI페퍼스 선수들 이 힘을 얻고, 더욱 실력을 발휘해 새 팬들을 끌어 모으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홈 경기장을 찾지 못한 팬들은 TV 중계를 시청 하며 마음을 달랬다.

국제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6 일 기업은행전 전체 케이블 가구 일일 시청률은 1.068%를 기록했다. 당일 순위 10위에 해당되는 시청률이다. 일일 시청자수는 23만7000명으로 전 체 7위에 안착했다. AI페퍼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 서 진행된 실황 중계에서도 시청자 4300여명이 몰 려 한 마음으로 응원 채팅을 쏟아냈다.

각종 SNS에서도 AI페퍼스 인기는 날로 오르고

AI페퍼스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5500명을, 인스 타그램은 팔로워 6000명을 돌파했다. 구독자·팔로 워 평균 2만여명을 확보한 타 구단에 비하면 아직 적지만, 창단 2개월만에 빠른 속도로 팬층을 확보 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선수들의 훈련 과정과 마음가 짐, 코트 뒷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WE ARE PEPPERS' 시리즈가 인기다. 이 시리즈는 첫 회 조회수만 7만회를 넘겼다. 첫 승 경기 하이라이트 (조회수 1만회)보다 인기가 더 높은 셈이다. 이 시 리즈는 높은 퀄리티로 호평을 받으며 최근 4화까지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지난 16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AI페퍼스와 IBK기업은행의 도드람 2021-2022 V리그 경기. 이날은 2138명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아 열띤 응원을 했다.

(KOVO 제공)



전남족구협회 선수단.

전남족구협회, 시·도대항 최강전 우승

결승서 창원썬 2-1로 꺾어

전남족구협회가 2021년 전국 시·도대항 족구최 강전 정상에 올랐다.

전남족구협회는 최근 전북 부안 스포츠파크에 서 열린 대회 일반부 결승전에서 창원썬을 2-1로 꺾고 우승 했다.

예선에서 완주한마음을 2-0으로 꺾고 본선에 진출한 전남족구협회는 32강에서 경북, 16강에서 논산공고, 8강에서 속초탱크를 상대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무실세트 완승을 거뒀다.

우승을 견인한 박높음은 최우수선수상, 장유신 감독은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했다.

감독 겸 선수로 출전한 장유신 전남족구협회 회 장은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대회가 무산돼 굉장 히 아쉬웠는데 그 기간 동안 준비를 잘 해서 우승 을 이뤄낸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남족구 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고진영·코다·리디아 고, 시즌 최종전 첫날 동반 플레이

LPGA CME 챔피언십 오늘 개막 올해의 선수 등 놓고 치열한 경쟁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1시즌 주 요 개인상 부문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인 고진영 (26)과 넬리 코다(미국)가 시즌 최종전 첫날 같은 조에서 경기한다.

18일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 클럽에서 개막하는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총 상금 500만 달러)은 올해 LPGA 투어 마지막 대

이 대회 결과로 LPGA 투어 올해의 선수, 상금

왕, 평균 타수 등 주요 부문의 1위가 확정된다. 현재 올해의 선수와 상금 부문 1위는 세계 랭킹

1위 코다다. 코다가 상금 223만7157 달러, 올해의 선수 포인 트 191점으로 1위에 올라 있고, 고진영이 상금

그 뒤를 쫓는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이 150만 달러, 우승하면 올 해의 선수 포인트 30점을 받기 때문에 아직 누가

200만2161 달러, 올해의 선수 포인트 181점으로

1위로 시즌을 마칠지는 예측하기 이르다. 시즌 최종전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고진영 과 코다는 한국 시간으로 18일 밤 11시 15분에 리 디아 고(뉴질랜드)와 함께 1라운드를 시작한다.

리디아 고는 현재 평균 타수 부문 4위지만 $1\sim3$ 위 선수들이 규정 라운드 수인 70라운드를 채우지 못해 시즌이 종료되면 1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고진영과 코다는 현재 세계 랭킹도 코다가 1위, 고진영이 2위인데 둘의 랭킹 포인트 격차는 0.95 점에 불과하다.

또 둘은 이번 시즌 나란히 4승씩 거둬 이번 대호 에서 우승하면 5승으로 다승 단독 1위가 될 수 있

15일 끝난 펠리컨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한 김세영 (28)은 코다의 언니인 제시카 코다와 함께 1라운드 를 치른다. 교포 선수 대니엘 강(미국)이 김세영, 제시카 코다와 동반 라운드에 나선다. /연합뉴스

목발 없이 걷는 우즈…필드 복귀 언제쯤

프레지던츠컵 단장은 합류 요청

지난 2월 자동차 사고로 심하게 다친 타이거 우 즈(미국)가 목발 없이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국 폭스 스포츠는 우즈가 최근 미국 로스앤젤 레스의 호텔에 투숙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을 17일 (한국시간) 보도했다.

영상 속 우즈는 자동차에 내려 호텔 정문으로 걸 어 들어갔다. 목발은 짚지 않았고, 등에는 배낭을 멨다. 반바지를 입은 우즈는 오른쪽 다리에 검은 색 무릎 보호대를 착용했고, 걸을 때는 눈에 띄게 절름거렸다.

자동차 사고를 당한 뒤 수술에 이어 힘겨운 재활 치료를 받는 우즈가 목발 없이 걷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아직 필드 복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내년에 열리는 미국-인터내셔널 골프 대항전 프 레지던츠컵 미국팀 단장인 데이비스 러브3세(미 국)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즈에게 팀 합류를 공 개적으로 요청했다.

러브3세는 "우즈가 지닌 엄청난 능력은 사라지 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즈가 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든 잘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러브3세는 우즈를 내년 프레지던츠컵에 선수 로 기용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자동 차 사고 이전에 대화를 나눴을 때 그는 '단장 역할 도 좋았지만, 선수로 뛰고 싶다'고 말했다"면서 "그가 회복해서 선수로 뛰었으면 좋겠다"고 강조

우즈는 지난 2019년 호주에서 열린 프레지던츠 컵 때 미국팀 단장 겸 선수로 나서서 미국팀의 우 승을 이끌었다. 2년마다 열리는 프레지던츠컵은 코로나19 사태로 1년 연기돼 내년에 치러질 예정 이다.

